

내년 교육복지중점학교 200곳으로 확대

도교육청,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추진 계획 설명회서

교육복지 안전망 통해 연계학교 위기가정 학생지원 강화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교육복지우선지원 중점학교를 2023년 123개교에서 2024년 200개교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날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지역교육지원청 담당

자를 대상으로 2024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된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북지역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적 취약성을 예방하고, 교육의 기회와 과정, 교육 결과

에서의 격차를 해소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 계획 안내 △2024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추진의 실제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운영 협의 △신규 중점학교 확대에 따른 준비사항 등에 대한 안내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14개 시·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연계학교의 위기가정

학생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올해 교육복지 대상 학생 중 3,690명을 표본 설문조사 한 결과 교육복지 프로그램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2.1% 상승한 87.9%로 나타났다”면서 “취약계층 학생 발굴과 복합적 위기 요인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충족하고 두터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2일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축구 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교권 4법 개정, 교육 회복 출발점’

전북교총,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대회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지난 12일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축구 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결과 무혐의 시 학부모에게 인한 교단의 위형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200여 명의 전북교총 회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교권 4법의 후속 조치,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등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 다짐을 한목소리로 결의했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학폭특별조사관계 도입 및 내년 3월 시행예정과 관련해서는 “환영한다”며 “당장 내년 3월부터 학폭특별조사관제를 차질 없이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종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교직사회의 교원들을 조직적으로 갈라치기 해 교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상황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공공체 신뢰 회복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총은 제35대 신임 회장으로 평교사 출신의 역대 최연소 회장을 선출하는 등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제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결과 무혐의 시 학부모에게 인한 교단의 위형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전북교총은 제35대 신임 회장으로 평교사 출신의 역대 최연소 회장을 선출하는 등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2024학년도 유·초등학교

입용 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24학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입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누리집(www.jte.go.kr)을 통해 공표된 77명 선발에 113명(유치원 일반 27명, 유치원 장애 1명, 초등 일반 58명, 초등 장애 1명, 특수유치원 일반 6명, 특수초등 일반 20명)이, 사립은 특수초등 4명 선발에 8명(전북맹아학교 7명, 전북해화학교 1명)이 합격했다.

응시자 개인별 합격 여부는 2024년 1월 9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jte.go.kr)에서 본인 인증 시 조회할 수 있다.

공표된 제1차시험 합격자 제출서류를 14~18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별관) 2층 스마트워크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사립은 해당 법인(학교)의 자체 시험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관련 제2차시험은 진주온빛중에서 2024년 1월 10일 교직적성 심층면접, 11일 수업실연, 12일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초등교사만 해당)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2024년 2월 2일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te.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이리모현초, 일본 시즈오카

세이코 중학생들과 국제교류수업

이리모현초등학교(교장 임미성)는 13일 일본 시즈오카 세이코 중학생들과 국제교류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한일교사 네트워크 단원인 공후재 교사의 주도로 이뤄진 이날 수업은 일본 중학생 17명과 영어교사 유스케 스즈키가 직접 모현초를 방문해 함께 수업했다.

6학년 영어 수업에 일본 학생들이 참여해 시즈오카 지역에 대해 발표하고, 문화 관련 말하기 게임도 했다. 이어 4교시에는 강당에 모여 친선 배드민턴 경기를 펼쳤다.

수업 후 식생활관에서는 일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 홍보설명회 개최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5일과 11일 2회차에 걸쳐 사업 홍보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LINC 3.0 사업의 개요, 추진방향, 지원내용, 진행하게 될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2024년 주문식 교육과정 선발대상인 1~2학년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기공학과 백민욱 학생은 “LINC 3.0 사업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학생 역량향상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2024년 LINC 3.0 사업 참여학생 모집에 선발된다면 목표하는 곳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비전대 LINC 3.0 사업단은 산업 수요기반 혁신 주도형 인재양성을 위해 전기공학과 외 8개 학과에서 Power System 융복합 인력양성 과정을 포함한 11개의 산학연 연계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지역기업 워크숍에서 직업교육 협력기업 위촉장 수여식이 열린 뒤, 박주용 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전북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역기업 워크숍

도내 70여개 기업 참여

내년 직업교육 정책 설명

협력기업에 위촉장 수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지역기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장 및 취업부장, 현장실습 선도기업·산학일체형도제학교 참여기업 등 도내 70여개 기업 대표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2024년 전북교육청 직업교육 정책 방향과 지역기업의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참여기업인 ㈜진우에스엠서 김운기 부장이 ‘직업계고 산학공동훈련 운영 사례’를 주제로 교육·취업·정책으로 이어지는 직업계고 학생의 성장경로와, 직업계고-지역기업 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청-지역기업-학교가 함께하는 2024년 전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게 직업교육 협력기업 위촉장을 수여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전북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업현장 교육과 채용에 적극 나서 준 지역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전북교육청은 지역기업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보육 기업들 ‘우수 중기 인정’

헤어피어테크놀로지 등

전북 창업기술혁신대전서

전북중기청장상 수상받아

안지은, 군산시장상

모디, 전주시장상 받아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권대규) 입주기업이 탁월한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헤어피어테크와 ㈜헤어피어테크놀로지가 지난 7일 열린 ‘2023 창업기술혁신대전’에서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 ㈜안지은은 군산시장상을, 희망전북 POST-BI 입주기업인 ㈜모디는 전주시장상을 받았다.

이날 전북지역 창업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권대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권대규 센터장은 2019년과 2020년 잇달아 전북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열린 2023 지역 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 스마트 농생명 창업기업 육성 성과보고회에서 ㈜메디앤리서치가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는 등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메디앤리서치는 의약품 리프팅 실, 필러를 주요 수출품목으로 2018년 7월 법인 설립 이후 2019년부터 꾸준하게 백민욱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지난 7일 열린 ‘2023 창업기술혁신대전’.

있다. 비타민-C보다 6배 이상 항산화 효과를 가진 원료인 디노잔틴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개발해 이를 활용한 자체개발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헤어피어테크는 환경기술개발 및 폐기물 업사이클링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2019년 12월 설립 후 기업의 환경영향 측정 대행 서비스 및 환경 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자원순환경제의 초석이 되는 환경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9년 2명의 인원에서 출발해 현재 14명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헤어피어테크놀로지는 세계 최초 흑인여성 가발용 지능형 기계장비를 개발하는 아이템으로 2019년 5월 법인 설립 후 2022년 청년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계장비 개발을 완성, 노동집약적인 가발 산업에 높은 생산 효율성을 이끌어 내 2023년

36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추후 글로벌셀러 아마존 입점을 통해 B2B 뿐 아니라 B2C로의 확장을 모색, 수출 지역 확대 및 판매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어 ㈜안지은은 영성융합 솔루션(HVS), 스마트트윈(Smart Twin), 3차원 콘텐츠 변위 관리자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으로 관계 및 운영을 위한 대시보드 구성의 구조를 3차원 형태로 구성해 이 특징에 맞게 콘텐츠의 편집 및 배치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실감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끝으로 ㈜모디는 스마트공장 MES 프로그램 패키지 개발로 지역 제조업 생산 자동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감,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2023년 전북 최초로 말레이시아 시장에 34만 불의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2024년 폴란드 공장과도 약 20만 불의 계약을 확정된 상태다.

/장은성 기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장점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반 구성... 19일까지

전북도교육청은 13~19일 5일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학업중단 학생 및 근로청소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 등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학령시설에 대해서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생들의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외에 그동안 학습자가 부담했던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까지 지원함으로써 전액 무상교육을 실현했다. 1인당 70만원인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도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전북교육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회계점검뿐만 아니라 장학사가 동행해 학사운영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이뤄지며,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보조금 운영, 학사관리, 교직원 복무, 재산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강 참의인재교육과장은 “학업 중단 학생들에게 학력인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소의 계층에게 만학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뿐만 아니라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전 직원 등 600여명 대상

전북도교육청은 13일 창조나래 시청 각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전 직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팀장급 이상 간부 6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다양한 이권 카르텔 사례 등이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공직자로서 우리 모두는 학교의 발전과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기관이 돼



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판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